

제목: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말씀: 히브리서 1장 19-25절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믿는 성도들의 진짜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할 일입니까?

- 1)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_____하는 것입니다
- 2) _____를 힘을 쓰는 것입니다
- 3) 그 날이 가까움을 알고 _____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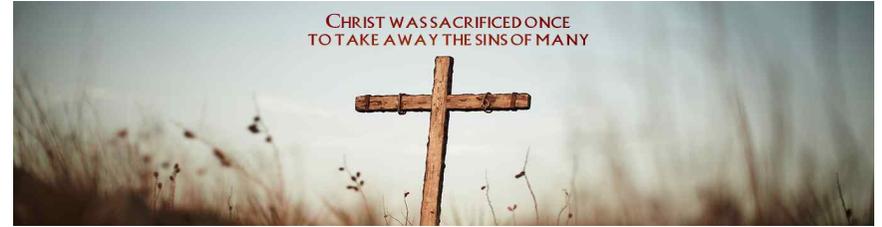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히브리서 10장 19-25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Hebrews 10: 19-25 신약 363 페이지 Prsider
- 말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김성민 목사
Message Are you a genuine believer?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앤드류 전 목사
Benediction Rev. Chun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또 다시 시작)

지난 주 신문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3,500 여개 중 1,000 교회가 넘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새로 개척한 교회도 300여 군데 되지만 더하고 빼면 700 여 군데 교회가 문을 닫은 셈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전염병의 영향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인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정말 그럴까? 또한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신학교와 미국의 유학 와서 있는 신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했다. 한국에 신학교는 새로 입학하는 신학생들이 적어지고 또한 미국에 유학 오는 신학생들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미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다음세대를 짊어지고 갈 인도자들 그리고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일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이라서 또 다른 부흥을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가? 혼란한 부분이 생긴다.

잠깐 힘이 빠지는 듯 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아본다. 그것이 마지막의 일이라고 하여도 그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불러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 임무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어디든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위의 들리는 소문은 어둡고 소망 적이지 않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달려가게 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 32-33절)라고 하신다.

좌나 우에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Deep Roots Church 목사님과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2022년 1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받아 가셔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